

대한민국 4050 직장인의 은퇴자신감 서베이

2022. 11. 23

이규성, 박지혜

CONTENTS

I. '은퇴자신감' 조사의 배경

II. 4050 직장인의 은퇴자신감 현황

III. 은퇴자신감 영향요인 분석

1. 재무적 요소의 영향
2. 비재무적 요소의 영향
3. 은퇴자신감의 저해 요인 및 개선 요인

IV. 결론

< 요약 >

- 곧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한국의 4050 세대 직장인들의 은퇴준비에 기반한 자신감 수준을 점검하고, 은퇴자신감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재무적·비재무적 요소를 파악하고자 국내 최초로 ‘은퇴자신감 서베이’를 시행하였음.
- ‘은퇴자신감’은 해외 조사사례 등을 참고하여, 여러 여건을 고려할 때 ‘은퇴 후 삶에 대한 자신감’이 어느 정도인지 0점에서 10점 사이에서 응답하게 하여, 이를 평균 점수화하여 집계하였음.
- 서베이 결과, 은퇴자신감 현황 및 은퇴자신감 형성의 영향요인에 대한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았음.
 - [은퇴자신감 점수의 분포] 직장인들이 직접 매긴 은퇴자신감 점수의 평균은 10점 만점에 5.2점이며, 은퇴자신감 점수 7~10점은 상위 30%, 0~4점은 하위 30%에 해당함.
 - [재무적 요소의 영향] 가계순자산, 근로소득,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이 클수록, 퇴직 및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을 확보한 경우 은퇴자신감이 높고, 은퇴자신감이 8점 이상인 사람은 연금 및 금융소득 등 노후소득 수단을 평균 5개 이상 마련했음.
 - [건강 우려 여부의 영향] 건강 우려가 있으면 우려가 없는 경우보다 은퇴자신감이 1점 이상 낮았고, 건강 문제를 보험으로 대비했다면 은퇴자신감이 평균 1.7점 더 높았음.
 - [정서적 요인의 영향] 가족 및 주변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노후의 취미·여가 활동에 대한 기대치가 높을수록 은퇴자신감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음.
 - [은퇴자신감의 저해 요인 및 개선 요인] 은퇴자신감이 낮은 경우 ‘은퇴자산 부족’을 주된 저해 요인으로, ‘일자리 및 직업교육’을 개선 요인으로 꼽았고 은퇴자신감이 높은 경우 ‘건강 우려’를 주된 저해 요인으로, ‘원만한 가족관계’를 개선 요인으로 선택했음.
- 자신 있는 노후를 위해 1) 은퇴 전 경제적 활동 시기에 기본적인 공·사적 연금 체계를 마련하고, 2) 은퇴자산을 통해 다양한 소득 수단을 갖추며, 3) 은퇴 초기와 같은 활동적 시기에는 근로 활동을 지속하여 근로소득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함.
- 건강 문제는 은퇴 후 삶의 질의 저하와 재무적 위험을 초래하므로, 평소 건강관리 및 보험대비를 통해 재무적, 비재무적 여건을 최대한 개선할 수 있어야 함.

I. '은퇴자신감' 조사의 배경

- 우리나라가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진입 중인 가운데, 대략 10~20년 후 은퇴를 준비하는 입장인 40~50대 직장인들은 길어지는 은퇴기간 등으로 인해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될 수 있을 것이며, 어떠한 대비를 통해 은퇴에 대한 자신감을 높일 수 있을지 고민할 것임.

(*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사회로 우리나라의 경우 2025년 진입이 예상됨.)

- 노후에는 자산 및 소득과 같은 재정적 기반, 건강, 인간관계, 여가 및 취미 활동 등 재무적, 비재무적 요소가 다양하게 고려되며, 이러한 요소들은 일반적으로 은퇴에 대한 자신감을 형성하는 데 주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고 있음.

- 은퇴에 대한 자신감과 이를 형성하는 조건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조사로는 미국의 연구기관인 EBRI(Employment Benefit Research Institute)의 '은퇴 자신감 서베이(Retirement Confidence Survey)'가 있음.

- EBRI는 근로자 복지 및 퇴직연금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미국 노동부에 여러 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대표적인 연구기관임.

- EBRI의 'Retirement Confidence Survey'는 '평안한 노후를 위한 재원 마련에 대해 얼마나 자신감이 있는가?', '은퇴 후 여가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생각해 보았나?'와 같은 질문을 통해 재무적·비재무적 요소에 기반한 개인의 주관적인 은퇴자신감 및 그 배경을 심층 조사하고,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있음.

- 미국의 사례처럼 국내 사정에 맞는 '은퇴자신감' 조사를 시행해 봄으로써, 초고령 사회를 앞둔 시점에서 은퇴준비의 필요 요소 및 바람직한 은퇴준비의 방향성 등을 미리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미래에셋투자자연금센터는 미국의 서베이 등 해외 조사에서의 '은퇴자신감' 점검 관련 질문들을 참고해보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질문들을 작성하여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은퇴자신감 서베이'를 국내 최초로 시행하였음.

- 이번 ‘은퇴자신감 서베이’를 통해 직장인들의 은퇴 후 삶에 대한 자신감 현황 및 은퇴 자신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재무적·비재무적 요소들을 중점적으로 파악해 보고자 함.
- 조사 대상은 경제활동을 통해 연금소득 등 재정적 여건을 본격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4050세대 직장인(2,000명)을 선정하였음.
- 조사대상 직장인이 스스로 평가하는 본인의 ‘은퇴자신감’ 수준은 10점 척도의 점수로 응답하게 하여 파악하고, 은퇴자신감이 낮은 그룹(하위 30%)과 높은 그룹(상위 30%)의 인구통계학적, 재무적 특성의 차이를 상호 비교해 봄.

<‘은퇴자신감 점수’ 측정 문항>

Q. 은퇴 후 삶에 대한 자신감은 어느 정도이십니까? 0점부터 10점까지 중에서 응답해 주세요.

0					5				10
매우									매우
자신 없음	←————→								자신 있음

자신의 은퇴 후 삶에 대한 자신감은 ()점 이다.

- 은퇴자신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재무적 요소(가계순자산, 근로소득, 국민연금 및 기타 노후 소득수단)와 비재무적 요소(건강, 정서적 요인 등)로 구분해 알아보는 한편 은퇴자신감의 저해 요인 및 개선 요인을 파악하여 행복한 은퇴 및 노후의 조건과 관련해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음.

<은퇴자신감 서베이 개요>

구분	내용
조사 대상	40~50대 직장인 2,000명 - 서울/수도권, 6개 광역시 및 세종시 거주자 - 100인 이상 근무 직장 근로자 (공무원 제외)
조사 기간	2022년 8월 24일 ~ 2022년 9월 7일 ((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 의뢰)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웹/모바일 조사
조사 내용	- 은퇴 준비 및 노후 생활에 대한 자신감 - 은퇴에 대한 자신감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파악 - 노후 우려 요인 및 은퇴자신감 개선 요인 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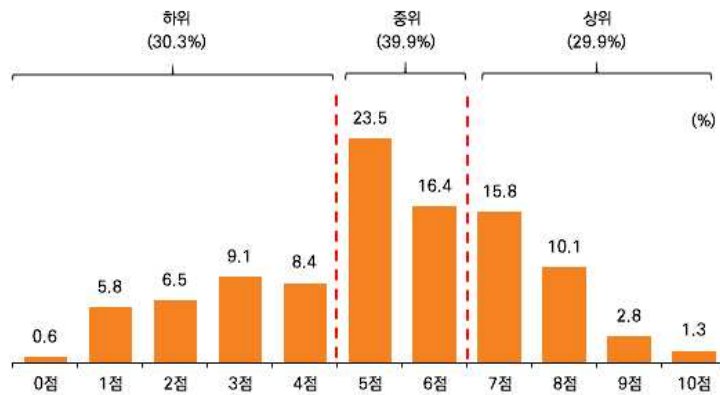
※ 표본은 층화 추출법을 활용하여 성별, 연령, 지역의 모집단 구성비를 고려하였으며, 직장 규모에 따라서 균등하게 할당하였음.

II. 4050 직장인의 은퇴자신감 현황

◎ 조사대상 직장인이 직접 매긴 은퇴자신감 점수의 평균은 10점 만점에 5.2점이며, 7~10점을 체크한 비중은 상위 30%, 0~4점을 체크한 비중은 하위 30%에 해당하였음.

- 은퇴자신감 점수의 분포를 보면, 중간값인 5점보다 점수가 높은 오른쪽에 좀 더 많이 분포한 모양으로, 5점 초과 비중(46.2%)은 5점 미만 비중(30.3%)의 1.5배 수준임.
- 은퇴자신감 점수가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 순으로 나열하여 3개 집단으로 나누어보면 0~4점은 하위, 5~6점은 중위, 7~10점은 상위에 속하는 것으로 집계됨.

〈도표 1〉 4050 직장인이 응답한 은퇴자신감 점수의 분포



* 조사대상 40~50대 직장인 2,000명 기준

◎ 낮은 은퇴자신감 점수를 기재한 그룹(0~4점, 하위 30%)과 높은 은퇴자신감 점수를 기재한 그룹(7~10점, 상위 30%)의 특성을 살펴보면 은퇴자신감이 높은 그룹에서 평균 연령 및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특히 가계의 순자산 및 근로소득 규모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집계되었음.

- 은퇴자신감이 낮은 그룹의 가계 순자산 규모는 평균 4억3천만 원이며, 은퇴자신감이 높은 그룹의 가계 순자산은 은퇴자신감이 낮은 그룹에 비해 2.2배 큰 평균 9억4천만 원으로 나타남.
- 은퇴자신감이 낮은 그룹의 가계 근로소득 규모는 평균 570만 원인 반면 은퇴자신감이 높은 그룹의 가계 근로소득은 평균 749만 원으로 집계됐음.

〈도표 2〉 은퇴자신감 점수 수준별 평균적 특성

		전체	하위 30% (0~4점)	중위 (5~6점)	상위 30% (7~10점)
인구 통계학적 속성	성별 비중 (남:여)	58%:42%	53%:47%	60%:40%	60%:40%
	연령대 비중	50대 50%	50대 49%	50대 49%	50대 53%
	평균 연령	49.1세	48.9세	48.9세	49.5세
	학력	대졸 이상 89%	대졸 이상 82%	대졸 이상 90%	대졸 이상 93%
재무적 속성	가계순자산	6억 6천만 원	4억 3천만 원	6억 2천만 원	9억 4천만 원
	가계근로소득	월 665만 원	월 570만 원	월 674만 원	월 749만 원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부부합산)	월 156만 원	월 139만 원	월 161만 원	월 167만 원
	노후 소득수단 개수*	4.5개	3.8개	4.5개	5.0개

* 은퇴 후 소득수단은 1) 국민연금, 2) 퇴직연금, 3) 개인연금, 4) 주택연금, 5) 기타 저축 및 투자자산, 6) 근로소득, 7) 부동산 임대소득 및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8) 가족의 지급지원 등 8개의 소득원을 제시하였음

● 조사대상 직장인들의 은퇴자신감 점수는 대졸이상 학력이 고졸이하 학력보다 1점 이상 높았으며, 가계 순자산과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은퇴자신감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학력별 은퇴자신감 점수는 고졸이하 4.4점, 대졸 5.5점, 대학원졸 5.8점으로, 대졸이상 이 고졸이하보다 1점 이상 높게 나타났음.
- 가계의 순자산 규모 및 근로소득에 따라 각각 4분위로 구분해봤을 때 순자산 분위가 높아질수록 은퇴자신감 점수가 최저 4.4점에서 6.1점까지 높아졌으며, 근로소득 또한 분위가 높아질수록 은퇴자신감 점수가 최저 4.6점에서 6.0점까지 높아졌음.

〈도표 3〉 주요 속성별 은퇴자신감 현황

구분	은퇴자신감 평균 점수
성별	남성 5.3점 / 여성 5.1점
연령대별	40대 5.1점 / 50대 5.3점
학력별	고졸 이하 4.4점 / 대졸 5.5점 / 대학원졸 이상 5.8점
가계순자산*	1분위 4.4점 / 2분위 5.0점 / 3분위 5.5점 / 4분위 6.1점
가계근로소득**	1분위 4.6점 / 2분위 4.9점 / 3분위 5.4점 / 4분위 6.0점

* 가계순자산 분위 구분: 1분위 2억원 이하, 2분위 2억원~4억7천만원, 3분위 4억7천만원~8억5천6백만원, 4분위 8억5천6백만원 초과

** 가계근로소득 분위 구분: 1분위 월 450만원 이하, 2분위 월 450만원~610만원, 3분위 월 610만원~850만원, 4분위 월 850만원 초과

Ⅲ. 은퇴자신감 영향요인 분석

- ✓ 자산 및 소득 여건 등 재무적 요소가 은퇴자신감 형성의 기반이 되고 있으며, 건강 및 정서적 안정감 등의 비재무적 여건은 은퇴자신감을 유지 또는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됨.
- ✓ 직장인이 생각하는 은퇴자신감의 저해 요인 및 개선 요인을 살펴본 결과, 원만한 가족 관계, 노후 일자리의 필요성 등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은퇴자신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건강 및 정서적 요인 등 비재무적 요소를 중시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음.

1. 재무적 요소의 영향

- ◎ [순자산] 조사대상 직장인들이 응답한 은퇴자신감 점수별로 가계순자산의 평균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가계순자산 규모에 비례하여 은퇴자신감 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도표 4〉 직장인의 은퇴자신감 점수별 평균 가계순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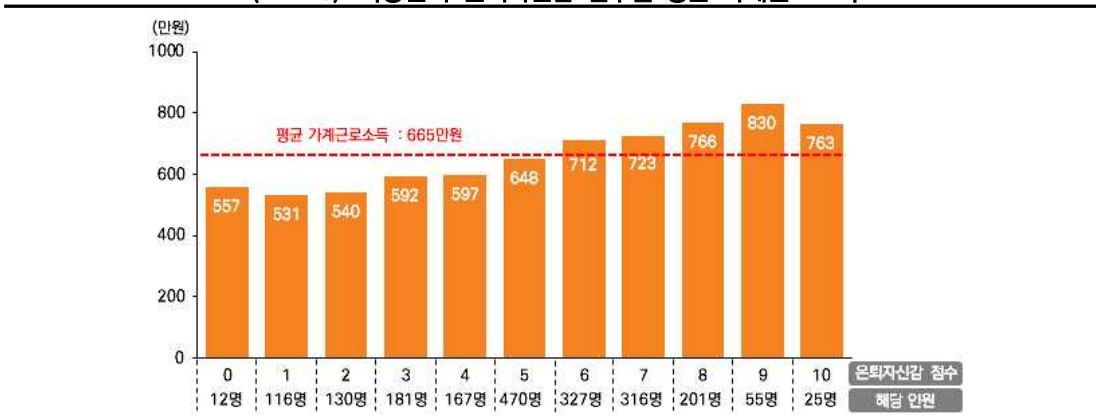


- 은퇴자신감 점수가 5점 이하로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의 가계순자산 규모는 전체 응답자의 평균인 6억6천만 원보다 작은 반면 은퇴자신감 점수가 6점 이상인 경우 전체 평균을 상회했으며, 7점 이상에서는 가계순자산 규모가 전체 평균과 비교적 큰 차이를 보였음.

◎ [근로소득] 가계근로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조사대상 직장인의 은퇴자신감 점수도 대체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음.

- 은퇴자신감 점수가 5점 이하로 낮은 사람은 가계 근로소득이 응답자 전체 평균인 665만 원보다 적었지만 은퇴자신감 점수가 6점 이상인 경우 근로소득은 응답자 전체 평균을 상회했음.
- 근로소득도 순자산과 마찬가지로 은퇴자신감을 높이는 요소로 보이지만 순자산만큼 명확한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됨.

〈도표 5〉 직장인의 은퇴자신감 점수별 평균 가계근로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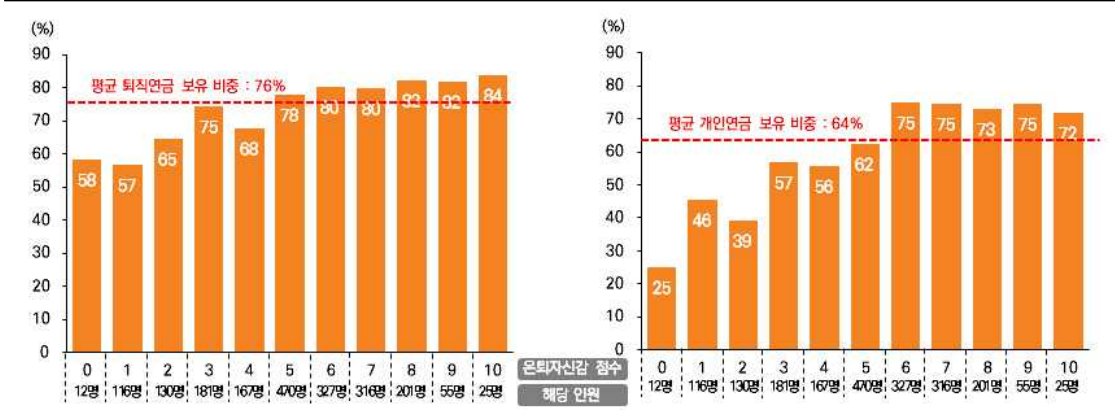


◎ [퇴직연금/개인연금] 사적연금의 준비 측면을 살펴보면,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을 보유하면 은퇴자신감 수준은 대체로 높은 경향을 보였음.

- 은퇴 후 소득수단으로 퇴직연금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비중은 은퇴자신감 점수가 4점 이하인 경우 응답자 전체 평균인 76%보다 낮았지만 은퇴자신감 점수가 5점 이상인 경우 응답자 전체 평균을 상회했음.
- 개인연금을 보유한 사람의 비중은 은퇴자신감 점수가 6점 이상일 경우 응답자 전체 평균인 64%를 상회했으며, 은퇴자신감 점수가 0~2점으로 매우 낮은 경우에는 개인연금을 보유한 사람의 비중이 전체 평균을 크게 밑돌았음.

· 은퇴 후 소득수단에 대한 문항으로 1) 국민연금, 2) 퇴직연금, 3) 개인연금, 4) 주택연금, 5) 기타 저축 및 투자자산, 6) 근로소득, 7) 부동산 임대소득 및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8) 가족의 자금지원 등 8개의 소득원을 제시하고 1개의 주소득원을, 복수의 부소득원을 선택하도록 하였음.

〈도표 6〉 직장인의 은퇴자신감 점수별 사적연금 보유 현황
 〈퇴직연금 보유 비중〉 〈개인연금 보유 비중〉



◎ [국민연금/기타소득] 조사대상 직장인의 53%가 국민연금을 노후의 주소득원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 직접 응답한 국민연금 예상수령액(부부합산)은 은퇴자신감 점수와 명확한 비례관계를 나타냈음.

- 공적 및 사적연금, 근로소득 등의 노후 재원 중 어떤 것이 주소득원이 될지 질문한 결과, 응답자들은 국민연금(53.5%), 근로소득(19.2%), 퇴직연금(8.2%) 순으로 우선순위를 꼽았음.
- 국민연금의 예상수령액은 은퇴자신감 점수가 4점 이하로 낮을 때 응답자 전체 평균인 156만 원보다 작았으며, 은퇴자신감 점수가 9~10점인 최상위 그룹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이 각각 179만 원, 192만 원으로 평균보다 23만 원, 36만 원 높았음.

◎ 다각적인 노후소득 수단의 준비 측면을 살펴보면, 응답자 전체는 국민연금을 포함해 평균 4.5개의 노후소득 수단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고, 은퇴자신감이 상위 점수대인 8~10점대의 사람은 노후소득 수단을 5개 이상 마련한 것으로 집계됐음.

- 은퇴자신감 점수가 4점 이하로 낮은 경우 소득수단의 수는 평균 3.8개로 전체 평균보다 낮았으며, 은퇴자신감 점수가 8점 이상으로 상위권에 있는 경우 소득수단의 수가 평균 5.1개로 5개를 상회하였음.
- 국민연금을 제외한 노후재원은 개별 금액 규모보다 다양한 수단의 마련 정도가 은퇴자신감 수준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음.

〈도표 7〉 직장인의 은퇴자신감 점수별 국민연금 및 노후 소득수단 현황
 〈본인이 응답한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평균〉 〈노후 소득수단 평균 개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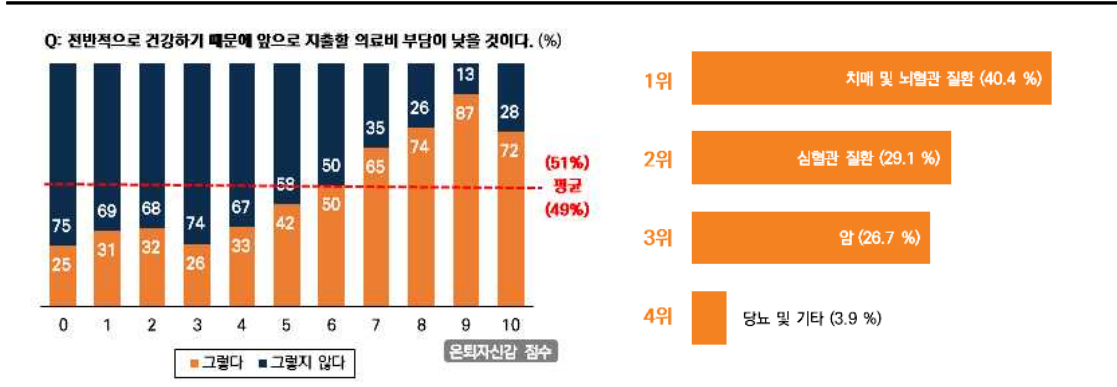


2. 비재무적 요소의 영향

◎ [건강] 건강은 은퇴자신감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높은 대표적인 비재무적 요소로 생각되는데, 서베이 결과 건강에 대한 자신감이 은퇴자신감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려되는 질병은 치매 및 뇌혈관 질환을 1순위로 꼽았음.

- 은퇴자신감 점수가 8점 이상으로 높을 때 본인 건강 상태를 자신하는 비중이 뚜렷하게 높았으며, 반대로 은퇴자신감 점수가 4점 이하로 낮은 경우 건강 상태에 대한 자신감은 뚜렷하게 감퇴되었음.
- 건강 측면에서 가장 걱정되는 질병은 ‘치매 및 뇌혈관 질환(40.4%)’이 꼽혔으며, ‘심혈관 질환(29.1%)’, ‘암(26.7%)’ 등이 그 뒤를 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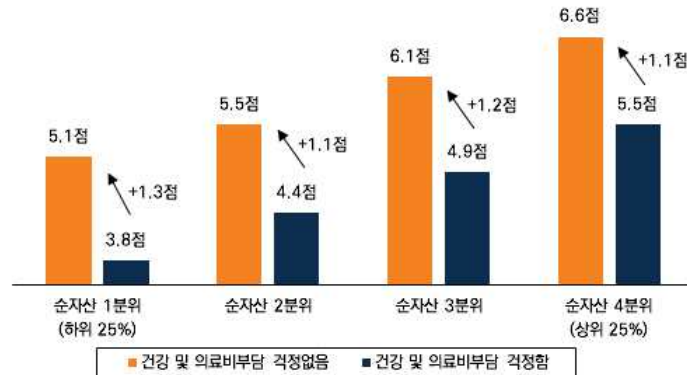
〈도표 8〉 직장인의 건강 우려와 관련한 응답 결과
 〈은퇴자신감 점수별 건강상태의 자신감〉 〈가장 우려되는 질환〉



◎ 재정적 여건과 관계없이 건강 상태에 자신이 없으면 은퇴자신감 점수는 1점 이상 낮아, 건강 우려 여부에 따라 은퇴자신감이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파악됐음.

- 건강 상태의 자신감을 가계순자산 수준과 함께 살펴보면, 가계순자산 상위 25%(4분위) 중에서 건강 상태에 자신 없는 사람은 은퇴자신감 점수가 5.5점으로, 同 분위 내에서 건강 상태를 자신하는 사람(6.6점)보다 뚜렷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가계 순자산이 하위 25%(1분위)인 사람 중에서는 건강 상태를 자신하는 경우 은퇴자신감 점수가 5.1점으로 전체 응답자 평균(5.2점)과 유사한 정도로 나타남에 따라 건강에 대한 자신감이 은퇴자신감을 높일 수 있는 주된 비재무적 요소로 판단되어짐.

〈도표 9〉 건강에 대한 우려 여부에 따른 은퇴자신감 점수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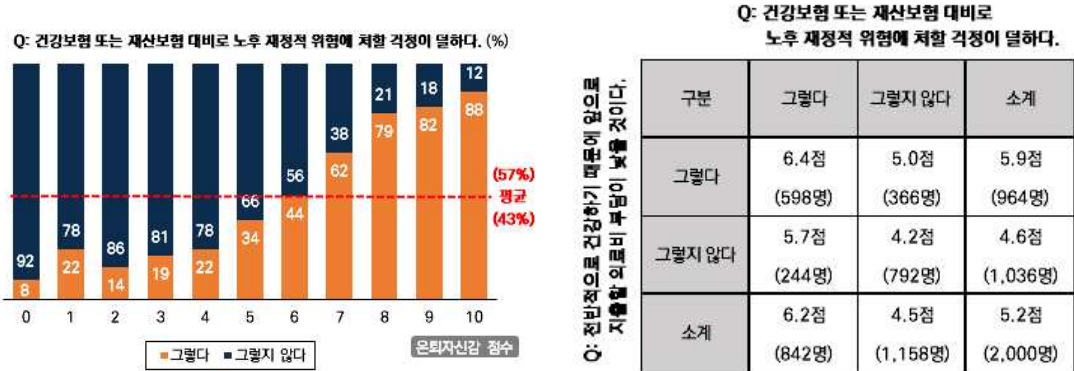


* 가계순자산 분위 구분: 1분위 2억원 이하, 2분위 2억원~4억7천만원, 3분위 4억7천만원~8억5천만원, 4분위 8억5천만원 초과

◎ 건강 악화로 인한 재정적 위험은 보험 가입을 통해 대비할 수 있는데 보험을 갖추었을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은퇴자신감 점수는 평균 1.7점 이상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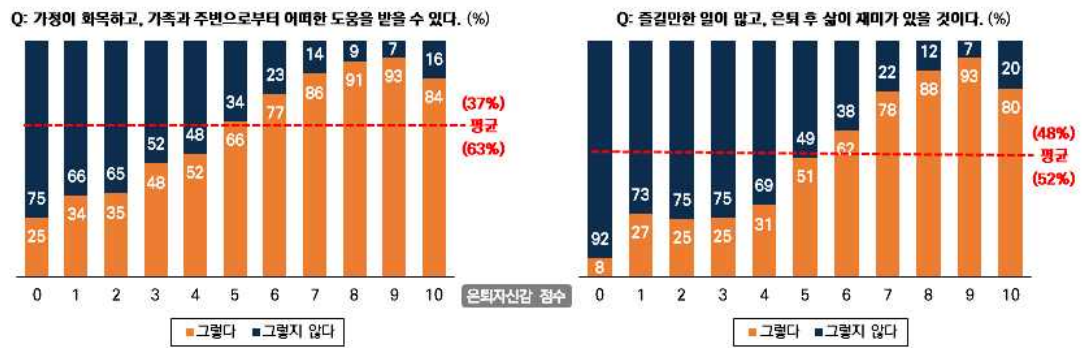
- 건강 악화 등에 따른 노후 재정적 위험을 보험으로 대비한 사람들이 응답한 은퇴자신감 점수는 평균 6.2점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평균 4.5점)에 비해 1.7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은퇴자신감 점수가 7점 이상으로 높은 경우 ‘보험으로 대비하여 노후 걱정이 덜하다’고 한 비중이 60% 이상으로 높았으며, 건강우려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가입을 통해 은퇴자신감 점수가 상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도표 10〉 직장인의 보험대비 여부와 은퇴자신감 점수
 〈은퇴자신감 점수별 보험대비 여부〉 〈건강우려 및 보험대비 여부에 따른 은퇴자신감 점수〉



- ◎ [정서적 요인] 원만한 가족 및 주변과의 관계, 취미·여가에 대한 기대 등과 같은 정서적 요인이 안정적일수록 은퇴자신감이 긍정적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파악됐음.
- ◎ 가족 및 주변사람과의 관계가 좋을수록, 노후에 즐길 수 있는 취미·여가 활동에 대한 기대치가 높을수록 은퇴자신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은퇴자신감 점수가 6점 이상인 경우 가족을 비롯한 주변과의 관계가 원만한 것으로 응답한 비중이 70% 이상이었으며, 3점 이하로 은퇴자신감 점수를 매긴 사람들은 가족 및 주변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고 답한 비중이 50%를 넘었음.
 - 은퇴자신감 점수가 6점 이상인 경우 주변에 즐길만한 일이 많을 것으로 응답한 비율이 60%를 상회한 반면, 은퇴자신감 점수가 4점 이하인 경우 同 응답 비중이 40% 미만으로 낮아져 노후의 취미 및 여가 활동 등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지는 것으로 파악됐음.

〈도표 11〉 직장인의 정서적 요인과 관련한 응답 결과
 〈가족관계 등의 원만함과 은퇴자신감〉 〈취미·여가와 관련한 인식과 은퇴자신감〉



3. 은퇴자신감의 저해 요인 및 개선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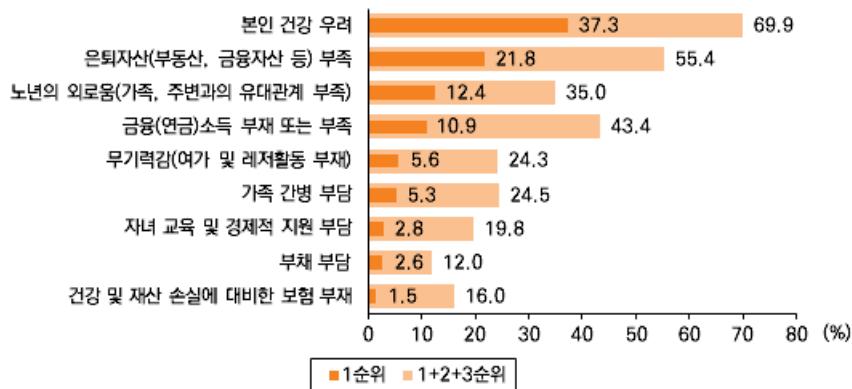
- 직장인들은 은퇴자신감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건강 우려(37.3%)’와 ‘자산 부족(21.8%)’을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원만한 가족관계 등을 통한 정서적 요인의 안정과 함께 일자리 마련 및 은퇴자 자산관리서비스 수취 등 재정적 요소를 개선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해 은퇴자신감을 높일 수 있다고 보는 편임.

1) 저해 요인

- 조사대상 직장인들이 꼽은 은퇴자신감의 저해 요인으로는 ‘건강 우려’의 1순위 선택 비중이 37.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은퇴자산 부족(21.8%)’과 ‘노년의 외로움(12.4%)’을 많이 선택하였음.

〈도표 12〉 직장인이 인식하는 은퇴자신감의 저해 요인

Q. 은퇴 후 삶에 대한 자신감을 저해하는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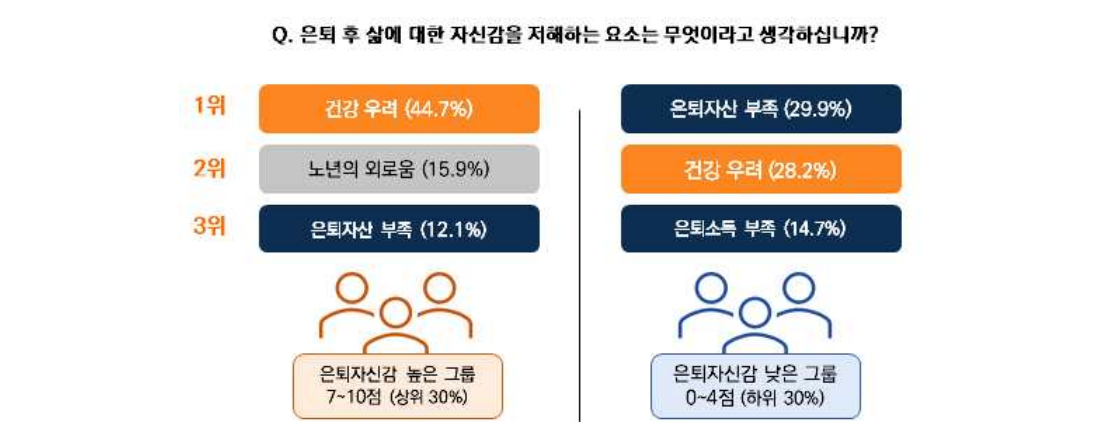


- 은퇴자신감이 낮은 그룹(4점 이하, 하위 30%)과 높은 그룹(7점 이상, 상위 30%)을 비교해 살펴보면, 은퇴자신감이 낮은 그룹은 주로 재무적 여건 악화로 인한 자신감 저하를, 은퇴자신감이 높은 그룹은 건강문제로 인한 자신감 저하를 우려하는 것으로 파악됨.

– 은퇴자신감이 낮은 그룹은 ‘은퇴자산 부족(29.9%)’, ‘은퇴소득 부족(14.7%)’ 등 주로 재무적 요소의 취약을 ‘건강 우려(28.2%)’와 함께 자신감 저해 요인으로 지목하였음.

- 은퇴자신감이 높은 그룹은 자신감 저해 요인으로 '건강 우려(44.7%)'를 가장 많이 지목했으며, '은퇴자산 부족'과 같은 재무적 요소의 취약을 꼽은 비중(12.1%)은 건강 우려에 비해서는 훨씬 낮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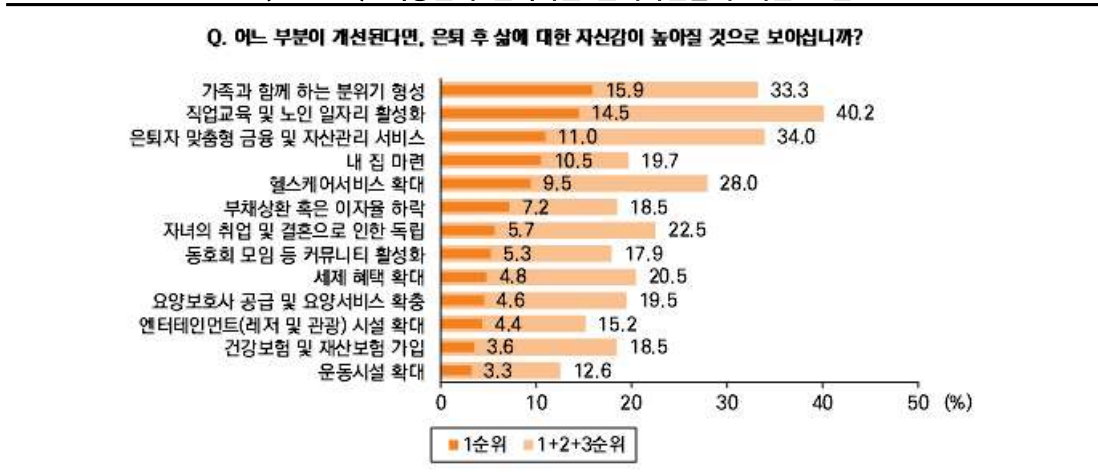
〈도표 13〉 은퇴자신감이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의 저해 요인에 대한 인식 차이



2) 개선 요인

- ◎ 은퇴자신감을 개선하는 데는 '원만한 가족관계(15.9%)', '일자리 및 직업교육 (14.5%)', '은퇴자 자산관리서비스(11.0%)'의 순으로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음.

〈도표 14〉 직장인이 인식하는 은퇴자신감의 개선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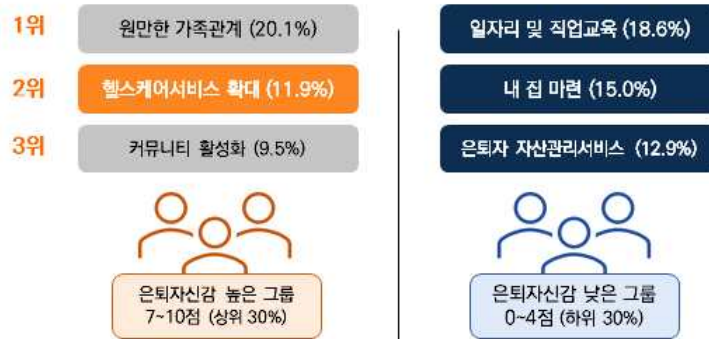


- ◎ 은퇴자신감이 낮을 경우 특히 소득 및 자산 등 재정적 요소를 개선할 수 있는 수단의 확충을, 은퇴자신감이 높을 경우 정서적 안정감 및 건강 등 비재무적 요소의 개선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은퇴자신감 점수가 4점 이하(하위 30%)로 낮은 그룹은 자신감을 개선하기 위해 ‘일자리 및 직업교육(18.6%)’, ‘내 집 마련(15.0%)’, ‘은퇴자 자산관리서비스(12.9%)’ 등 주로 소득 및 자산을 늘릴 수 있는 수단의 확충이 중요하다고 보았음.
- 은퇴자신감 점수가 7점 이상(상위 30%)으로 높은 사람들은 ‘원만한 가족관계(20.1%)’, ‘헬스케어서비스 확대(11.9%)’, ‘커뮤니티 활성화(9.5%)’ 등 주로 비재무적 요소의 개선이 은퇴자신감을 높이는 데 더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음.

<도표 15> 은퇴자신감이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의 개선 요인에 대한 인식 차이

Q. 어느 부분이 개선된다면, 은퇴 후 삶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질 것으로 보십니까?



- 은퇴자신감이 떨어지는 사람은 부족한 재무적 요건이 충족되면, 기존에 은퇴자신감이 높은 사람은 건강 개선을 포함해 정서적·비재무적 안정성이 보장되면 각각 은퇴자신감을 더 개선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판단됨.

IV. 결론

- 4050 직장인을 대상으로 ‘은퇴자신감’에 대한 서베이를 실시한 결과, 은퇴자신감 현황 및 은퇴자신감 형성의 영향요인과 관련한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

〈4050 직장인의 ‘은퇴자신감’ 현황 및 은퇴자신감 형성의 주요 특징〉

은퇴자신감 점수의 분포

조사대상 직장인이 직접 체크한 은퇴자신감 점수의 평균은 10점 만점 기준 5.2점
은퇴자신감 낮은 그룹: 4점 이하(하위 30%), 은퇴자신감 높은 그룹: 7점 이상(상위 30%)

재무적 요소가 은퇴자신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

가계순자산, 근로소득,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클수록, 사적연금이 확보된 경우 은퇴자신감 높음
노후소득수단 개수: 은퇴자신감 4점 이하 평균 3.8개, 은퇴자신감 8점 이상 평균 5.1개

건강 우려가 은퇴자신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

재정적 여건과 관계없이 건강에 대한 우려가 있으면 우려가 없을 때보다 은퇴자신감 1점 이상 하락
건강 악화로 인한 재정적 위험을 보험으로 대비했다면 은퇴자신감 1.7점 개선

정서적 안정감이 은퇴자신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

가족관계가 원만하고 노후의 취미·여가활동에 대한 기대치가 높을수록 은퇴자신감 증가
취미·여가활동에 대한 기대치: 은퇴자신감 4점 이하 40% 미만, 은퇴자신감 7점 이상 70% 상회

은퇴자신감의 저해 요인 및 개선 요인

은퇴자신감 낮은 그룹(4점 이하, 하위 30%)이 꼽은 저해 요인 및 개선 요인 1위:
저해 요인 ‘은퇴자산 부족(29.9%)’ / 개선 요인 ‘일자리 및 직업교육(18.6%)’
은퇴자신감 높은 그룹(7점 이상, 상위 30%)이 꼽은 저해 요인 및 개선 요인 1위:
저해 요인 ‘건강 우려(44.7%)’ / 개선 요인 ‘원만한 가족 관계(20.1%)’

- 은퇴자신감을 형성하는 데는 자산 및 소득, 연금 등 재무적 요소의 준비가 기본적으로 수반돼야 하며, 건강한 상태의 유지 및 정서적인 안정감은 은퇴자신감을 유지 또는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 1) 은퇴 전 경제적 활동 시기에 기본적인 공·사적 연금 체계를 마련하고, 2) 은퇴 자산을 통해 다양한 소득 수단을 갖추며, 3) 은퇴 초기와 같은 활동적 시기에는 근로 활동을 지속하여 근로소득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함.
- 건강 문제는 은퇴 후 삶의 질의 저하와 재무적 위험을 초래하므로, 평소 건강관리 및 보험대비를 통해 재무적, 비재무적 여건을 최대한 개선할 수 있어야 함.

지금 한국사회와 가계는 큰 변화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유례 없는 초저금리시대가 도래하면서 자산운용방식에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저성장과 고령화로 연금자산관리의 중요성은 커졌습니다.

투자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미래에셋투자자산운용센터는 고객의 평안한 노후에 기여한다는 미래에셋그룹의 비전 하에 투자와 연금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연구,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투자자산운용센터는 투자와연금리포트를 통해 투자 및 연금 분야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심도 깊은 분석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미래에셋투자자산운용센터 리포트 지난 호

... 이전 생략...

- [46] 밀레니얼 세대, 新투자인류의 출현, 2020.7
- [47] 5060 세대의 의료비 지출 및 보험보장 실태, 2020.9
- [48] 변액보험 펀드 수익률 분석 및 시사점, 2020.11
- [49] FAANG을 넘어 BBIG로, 2020.11
- [50] 저금리·장수시대의 도래와 美 연금시장의 대응, 2020.12
- [51] 5가지 키워드로 본 밀레니얼 세대의 투자와 미래, 2020.12
- [52] 코로나19가 가져온 퇴직연금 시장의 5가지 변화, 2021.11
- [53] MZ세대의 은퇴인식과 퇴직연금 운용 트렌드, 2021.12
- [54] 늦어지는 은퇴, 생애주기수지 적자에 대비하라, 2022.3
- [55] 적립금운용위원회와 IPS 도입, DB 적립금 운용을 리셋하다, 2022.4
- [56] 은퇴준비를 위한 인출계획 수립과 인출계획서 활용, 2022.9
- [57] 3050 직장인의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선택의 5가지 특징, 2022.11

투자자산운용리포트는 미래에셋투자자산운용센터 홈페이지(investpension.miraeasset.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미래에셋투자자산운용센터의 저작물이므로 사전 동의 없이 무단전재·복제를 금지합니다.

보고서 내용을 인용·전재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미래에셋투자자산운용센터에 문의해 주십시오.

또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작성자 개인의 의견으로 미래에셋투자자산운용센터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